

I

서론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배관(냉·온수 배관, 난방 배관 등)의 파손, 화장실 방수층의 손상, 외벽 콘크리트의 균열, 옥상 방수층 하자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의 42.6%(동 수 기준, 주거용 건축물로만 보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누수 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표 I-1〉 경과년수별 건축물 비율 현황(동 수 기준)

(단위: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기타	합계
10년 미만	12.0	21.4	24.3	15.3	24.5	15.9
10년~20년 미만	11.9	20.5	29.9	26.1	23.3	16.1
20년~30년 미만	15.6	21.5	24.3	26.7	24.9	18.5
30년 이상	52.0	32.6	19.0	24.6	22.7	42.6
기타	8.4	3.9	2.5	7.4	4.5	6.8

자료: 국토교통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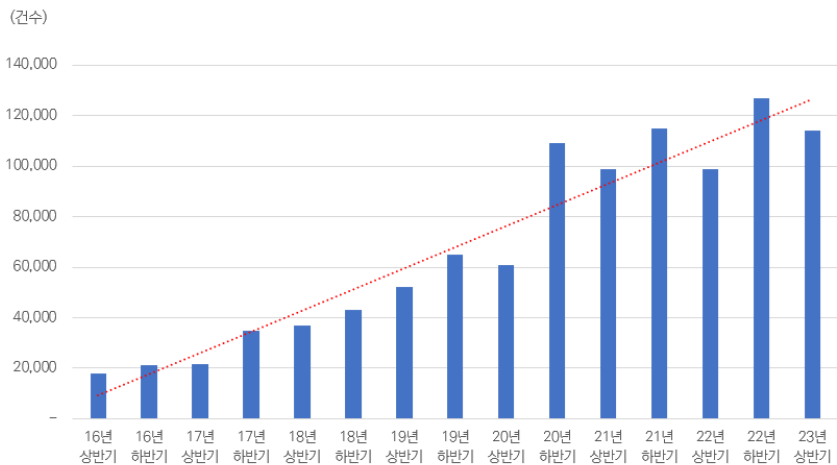
누수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예를 들어,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물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로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신용정보원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 추이를 AI 툴을 활용하여 분

1) 한국경제(2020. 10. 26),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석한 결과에 의하면²⁾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지급 건수 중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³⁾ 특히 2016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사고 원인 중 누수 사고의 비중이 사고 건수 기준 29.1%에서 52.7%, 지급금액 기준 31.9%에서 65.6%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이 전체 사고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11.1배(136억 원 → 1,517억 원), 지급 건수 7.1배(15,979건 → 113,217건), 평균 지급 금액 1.6배(855,952원 → 1,340,022원)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금액 및 건수의 증가세(지급 금액 4.3배, 지급 건수 3.9배, 평균 지급 금액 1.1배)를 크게 상회한 수치로,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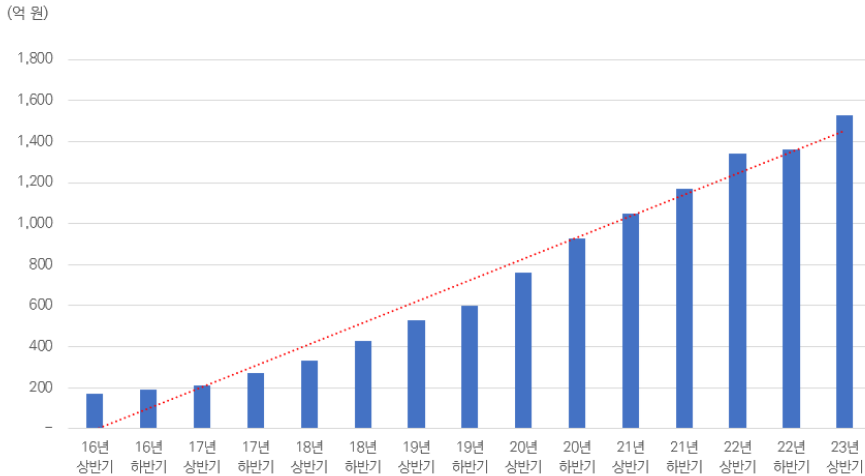
〈그림 I-1〉 누수 사고 지급 건수 추이



자료: 신정환(2023)

2) 보험금 지급 정보 중 ‘보험사고내용’ 항목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사고 원인 10종으로 분류하고, 머신러닝 분류모델을 통해 학습함
 3) 누수(48.2%) → 기타(23.2%) → 놀이(10.6%) → 자전거(5.1%) → 떨어트림(5.0%) → 부딪침(3.8%) → 이종주차(2.3%) → 물체 던짐(1.0%) → 운동(0.5%) → 반려동물(0.3%) 순임
 4) 신정환(2023)

〈그림 I-2〉 누수 사고 지급 금액 추이



자료: 신정환(2023)

누수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상법 및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의하면 주된 급부(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등도 별도로 보상하고 있는 것인데, 누수 관련 보험금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것에는 손해방지비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용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툼이 많은 것이다.⁵⁾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를 둘러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5) 머니투데이(2020. 4. 18), “화장실 누수된 김에 ‘올수리’... 보험금 받을까”; 보험신보(2020. 3. 16), “보험사기 격 정되는 일상생활배책”; 대한금융신문(2023. 2. 22),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로 하여 상법상 손해방지비용 조항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법리 및 분쟁사례 연구를 통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합리적 보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예방과 감축,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입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2장에서 일반론으로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조항의 내용, 취지 및 구체적 요건 등 법리를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주요 분쟁사례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의 일반론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누수 사고 관련 분쟁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 방안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